

'광주학생독립운동 백서' 전국 학교에 보급

광주교육청 역사교사들 참여 제작 역사·의의 문답형식으로 풀어내 전국 교육청·지원청에도 배포 일제 항거 3대 민족운동 알리기

올해 90주년을 맞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담은 백서가 나왔다.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자는 국내 모든 학교에 배포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 백서인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을 제작해 국내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에 배포되고, 전국 사·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97곳에 각각 3~5권씩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백서 제작에는 광주지역 역사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집필자로는 ▲신봉수 광주예술고 역사교사 ▲김보름 문화중 역사교사 ▲황행자 광주송일중 수석교사 ▲송운혁 광주서석고 역사교사가 참여했고,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유민지 장덕고 역사교사 ▲윤덕훈 수원하나중 역사교사 ▲강민경 조대여고 역사교사가 검토를 맡았다.

이들은 지난 8월 제작에 착수해 이달 18일 검토를 완료한 뒤 최근 보급에 나서고 있다.

백서 제작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아 진행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 의의 등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국 학교 학생들에게 안내해 학생독립운동 전국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위원 및 검토위원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책자는 학생독립운동이 왜 전남에서 시작됐는지, 광주지역 맹휴투쟁의 서막이 된 야구시합 사건은 무엇인지 등 '학생독립운동 배경'을 비롯한 '학생독립운동을 이끈 학생 조직'과 '11월 3일 당시 상황', '전국 해외로 확산', '법정 투쟁과 옥중 투쟁', '정신의 계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국내외 320개 학교도 담고 있다.

2006년 광주시교육청이 조사를 통해

1929~1930년 전개된 학생독립운동에 국내외 320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직까지 현재 중등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해 194개 학교로 서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9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후세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있다. 전국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될 이번 백서가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제에 과감히 항거했던 의로움의 실천이었다"며 "전국 교사들이 학생독립운동 백서를 활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열차 탈선 대피 훈련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서 열린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동구청과 광주도시철도공사, 31사단 장병들이 열차탈선을 가정한 응급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대검, 변호인 조사 참여권 확대 모든 변론 기록 '물래 변론' 차단

앞으로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된다.

변호인의 선임 및 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에 입력함으로써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변론상황을 내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물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해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키스' 시스템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물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또 변호인이 검사에게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사건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1	달뜨기	08:50
해질	17:41	달집	19:26

큰 일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8/19	보성	맑음	4/18
목포	맑음	10/18	순천	맑음	9/20
여수	맑음	11/19	영광	맑음	7/18
나주	맑음	4/19	진도	맑음	9/18
완도	맑음	10/19	전주	맑음	7/18
구례	맑음	4/19	군산	맑음	7/18
강진	맑음	6/19	남원	맑음	5/19
해남	맑음	4/19	흑산도	맑음	13/19
장성	맑음	5/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0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27	03:16
	20:58	15:52
여수	03:51	10:28
	16:27	22:31

◇주간 날씨

31(목)	11/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	☀	☁	☀	☀	☀	☀
8/21	12/21	11/20	11/20	9/19	9/19	8/20

광주·전남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황사 영향

오늘은 '보통 수준' 예상

29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를 기해 시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남은 서부권 12개 시·군에서 정오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

고, 오후 1시께 동부권 1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권역별 15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오후 1시 기준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광주 170㎍/㎥, 전남 179㎍/㎥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생했고, 이 황사가 기압골 후면을 따라 점차 남동진 하면서 29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져 30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소년 32% "학교급식 수산물 반찬 싫어요"

국내 청소년들이 수산물을 좋아하면서도, 학교 급식에서 주는 수산물은 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국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1.5%가 수산물이 건강과 영양 면에서 우수한 식품이라고 응답했다. 좋지않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수산물 전반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보통 또는 좋아한다는 응답 비율이 82.8%였다. 싫어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다

(62.1%)에 이어 가족들이 좋아해서 같이 먹다 보니 좋아하게 됐다(16.9%)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수산물에 대해선 좋아한다(32.1%)와 싫어한다(32.3%)는 응답이 비슷했다. 싫어하는 이유로는 맛이 없다(44.3%), 비린내 등 특유의 냄새(29.4%), 뼈·잔가지 등 때문에 먹기 불편(14.9%) 등 순으로 대답했다.

급식에 제공된 수산물 반찬을 아예 먹지 않거나 남기는 학생이 66.0%에 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찰청, 경찰청 주관 재난·테러 대응훈련

광주지방경찰청이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지방경찰청서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경찰청 주관 '2019 재난대응 안전한 국훈련'을 한다. 29일 열린 토론기반훈련에는 경찰청 등 11개 기관 20명이 참여했다.

훈련에선 테러로 인한 화재·유해화학물질 폭발사고 등을 가정해 경찰청 본청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광주지방경찰청에 상황전파 및 대응을 지시했다. 30일에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30개 기관 225명이 참여하는 실행기반 훈련이 펼쳐진다. 총기인질 테러 발생상황, 테러범 진압, 화학 가스 누출, 피해 복구 등의 상황을 훈련한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간부들도 참여하며, 주민 260여명이 참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창립 11주년

파라뷰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기념 이벤트

총 3천만원대 경품!

기아자동차 K3력서리 당첨의 기회!!

응모대상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17층 파라뷰 뷔페 레스토랑 점심 또는 저녁 식사 후 결제 완료 고객에게 응모권 1매 제공

응모방법 결제 완료 후 제공된 응모권을 작성하여 매장 내 응모함에 투입

응모기간 2019. 11. 01.(금) ~ 2020. 02. 01.(토)

추첨발표 2020. 02. 01.(토) 20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17층 파라뷰 뷔페 레스토랑 (추첨 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및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홈페이지에 게시 www.ramadagwangju.com)

경품

대상 기아자동차 K3(력서리) 1명

1등 위니아딤배 김치냉장고(467L 스탠드형 BDQ48CQGDS) 1명

2등 LG 트롬 세탁기 (18kg F18WDAU) 2명

3등 삼천리자전거 아이언맨(21단 700C 하이브리드 2019) 10명

*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당첨품만 인정됩니다.
* 상품은 2020.02.1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미수령시 소멸됩니다.

예약 문의 | **062-717-7755 / 8888**